

사전 지식을 접목하기

K-W-L(아는것-궁금한것-배운것) 차트는 학생들의 사전 지식을 접목, 활용하기 위해 가장 널리 사용되는 그래픽 구조도입니다. K-W-L 차트는 "아는 것(Know)", "궁금한 것(Wonder)", "배운 것(Learn)"의 세 가지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이렇게 간단한 차트를 통해 학생들이 특정 주제에 대해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물어봄으로써 사전 지식을 확인하고, 콘텐츠에 대한 탐구를 시작하기 전에 개인적인 관심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먼저 학생은, 차트의 "아는 것" 섹션에서 자신의 아이디어에 대한 브레인스토밍을 수행합니다. 그런 다음 "궁금한 것" 섹션에서 개인별 또는 그룹별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콘텐츠에 대한 질문 목록을 작성합니다. 마지막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질문에 대한 해답을 확인해 가면서 "배운 것(Learn) 섹션을 완성합니다.

K-W-L 차트는 학생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으로부터 의미를 체계화하고, 이미 알고 있는 지식과 새로운 지식을 비교하고, 아이디어를 보다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게 합니다. 또 콘텐츠에 대한 집중력과 관심을 유지하고 지금까지 배운 내용이 무엇인지 추적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궁극적으로, K-W-L 차트는 학생이 배운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평가 자료의 하나로써 활용이 가능합니다.

K-W-L는 학습 주제 또는 학년에 관계없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새로운 학습 단원을 시작하면서 차트 작성을 시작하여 단원이 완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참조하게 됩니다. 대개의 경우 K-W-L 차트는 채점 대상이 아닙니다. 학생들은 점수에 연연하지 않고 자신의 아이디어와 질문을 자유롭게 적어 넣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차트는 또 일대일 토론 또는 전체 학급 토론을 준비하기 위한 자료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